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오천명을 먹이신
예수님



저자: Edward Hughes
삽화: Janie Forest
Alastair Paterson
각색: Ruth Klassen
번역: Helen Hwang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BFC
PO Box 3
Winnipeg, MB R3C 2G1
Canada

©2022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반박하었어요. 그 중 몇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도 하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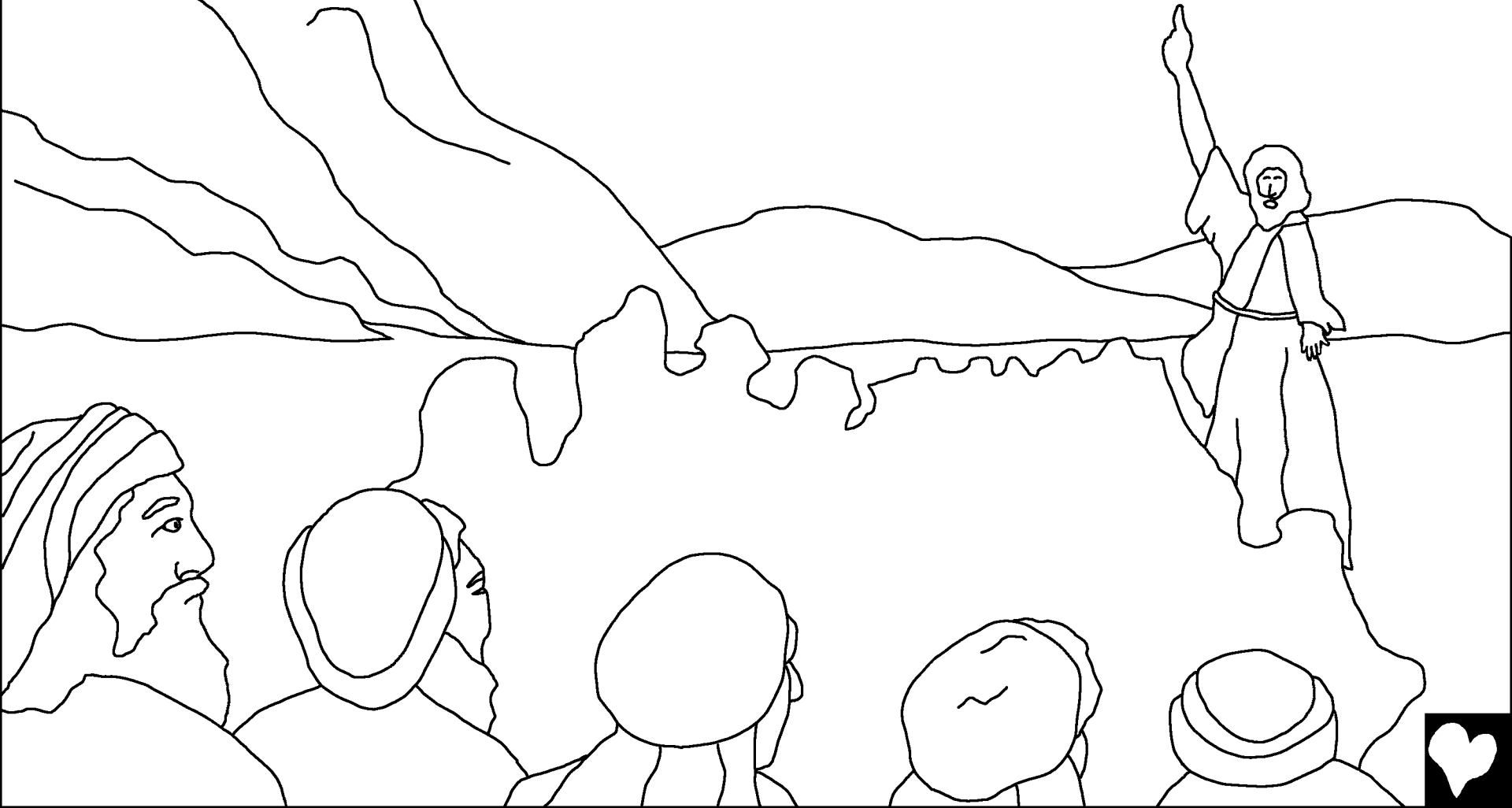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증명할 만한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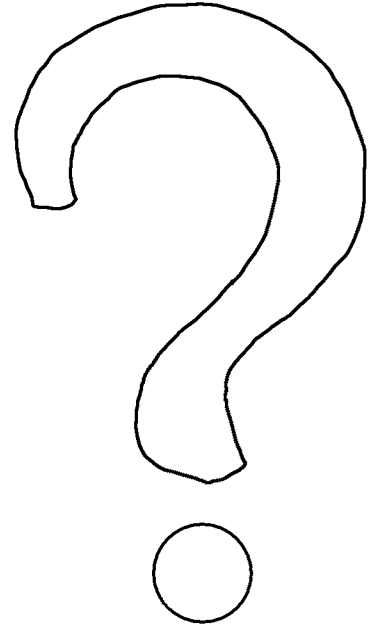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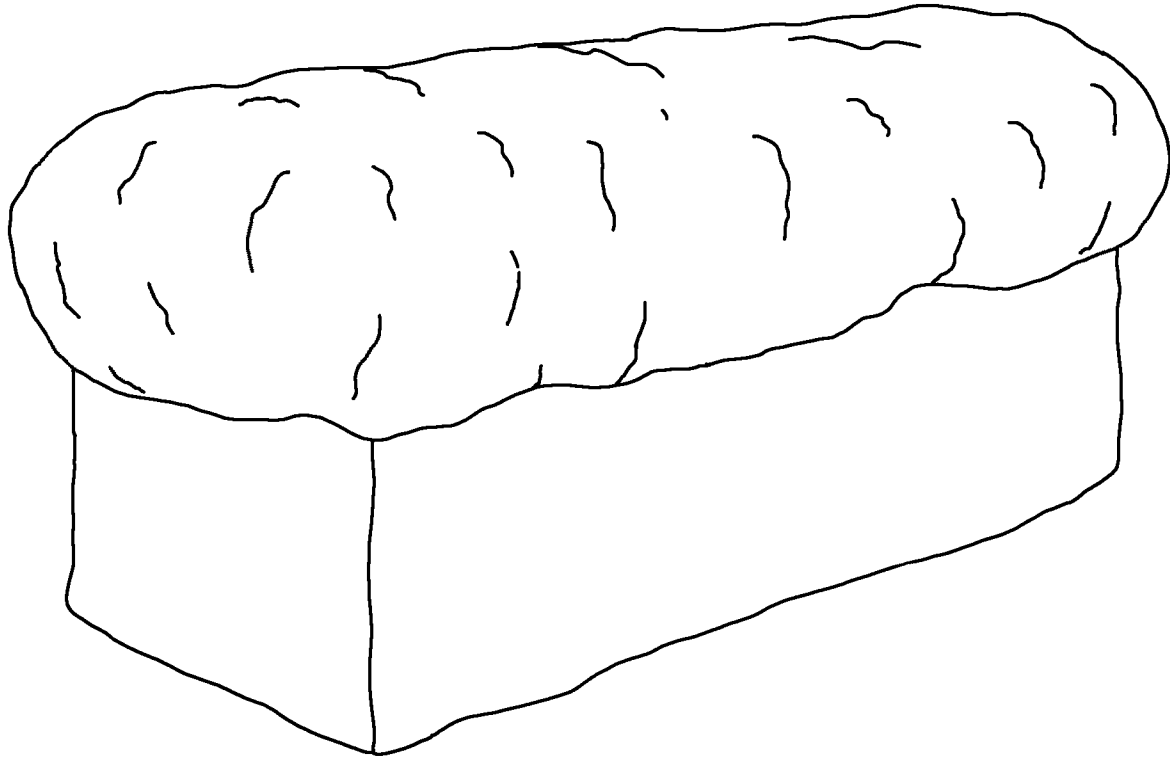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곧 저녁시간이 되었고 그들 모두는 정말 배가 고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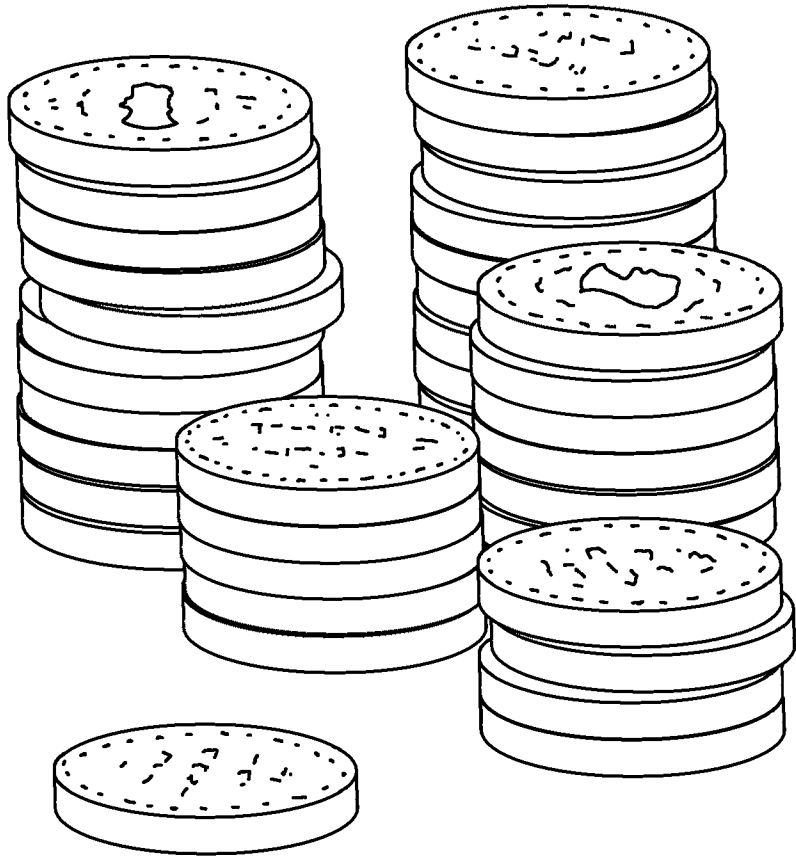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곧 저녁시간이 되었고 그들 모두는 정말 배가 고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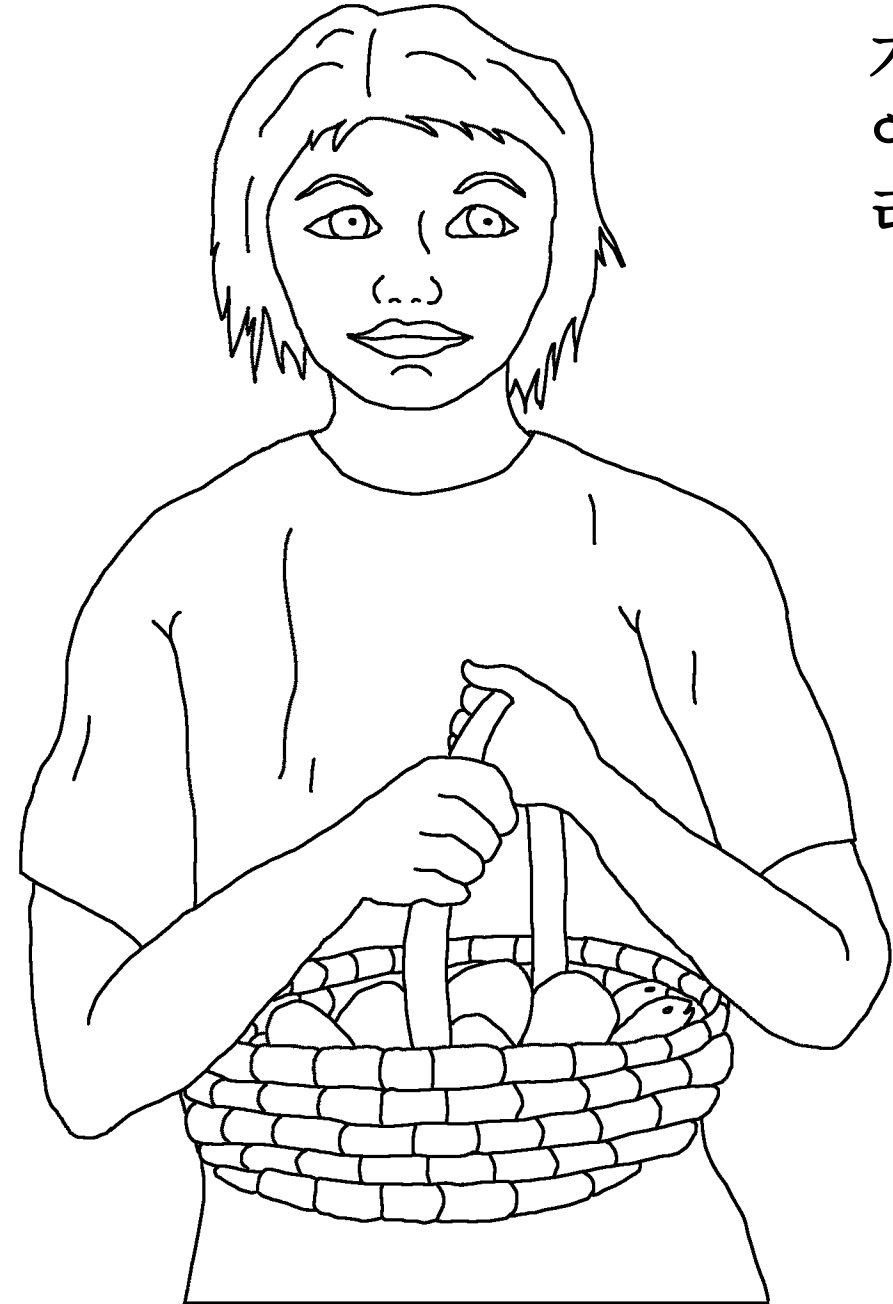
예수님이 무리를 둘러보시고는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어디서 이 무리를 먹일 음식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근처에 음식을 살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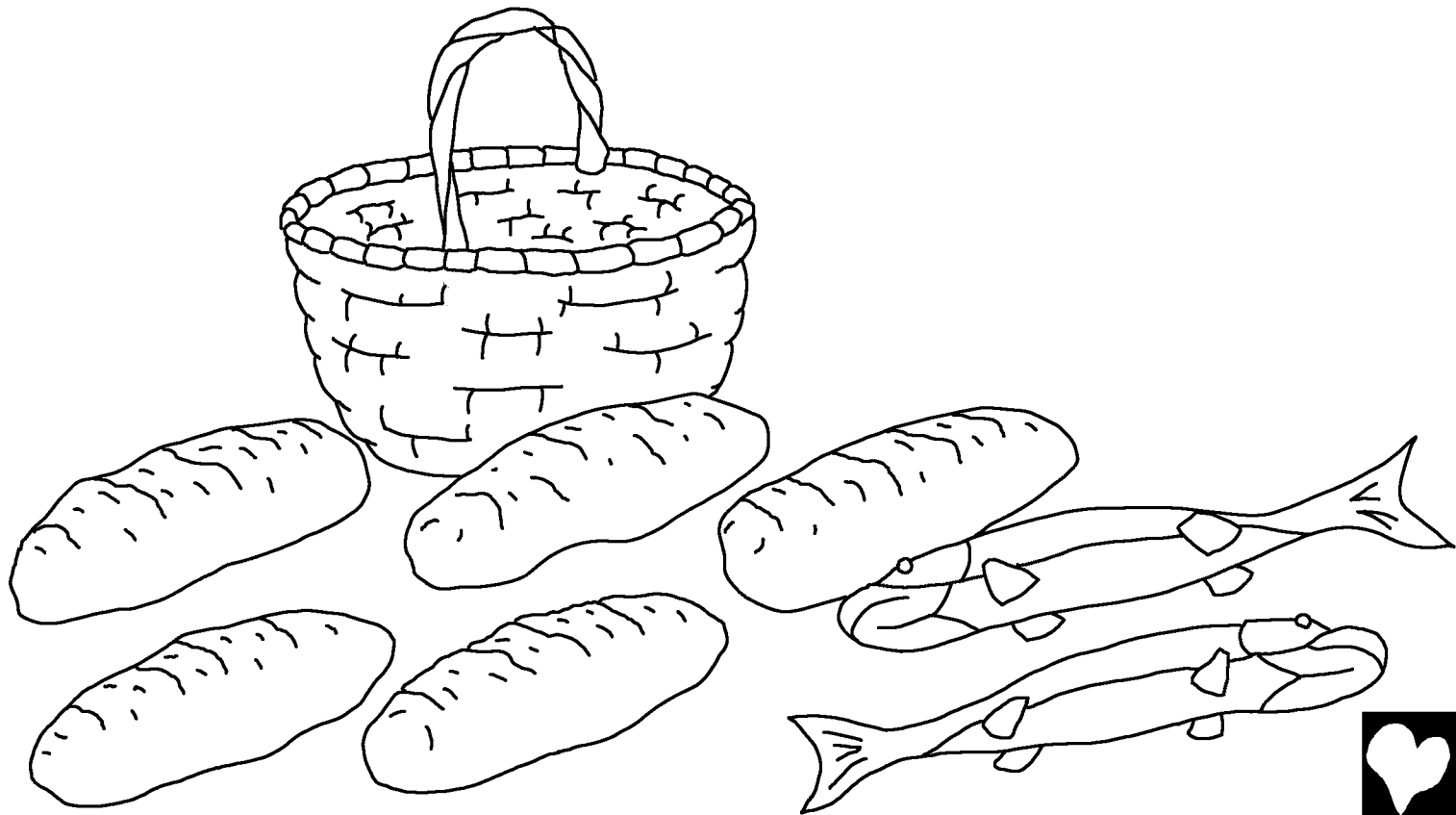
“이 무리를 먹으려면 정말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빌립이 걱정스레 대답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진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한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많은 무리를 먹이기에는?” 안드레는 그 소년이 자기 점심을 주님께 기꺼이 드린다 할지라고 어떻게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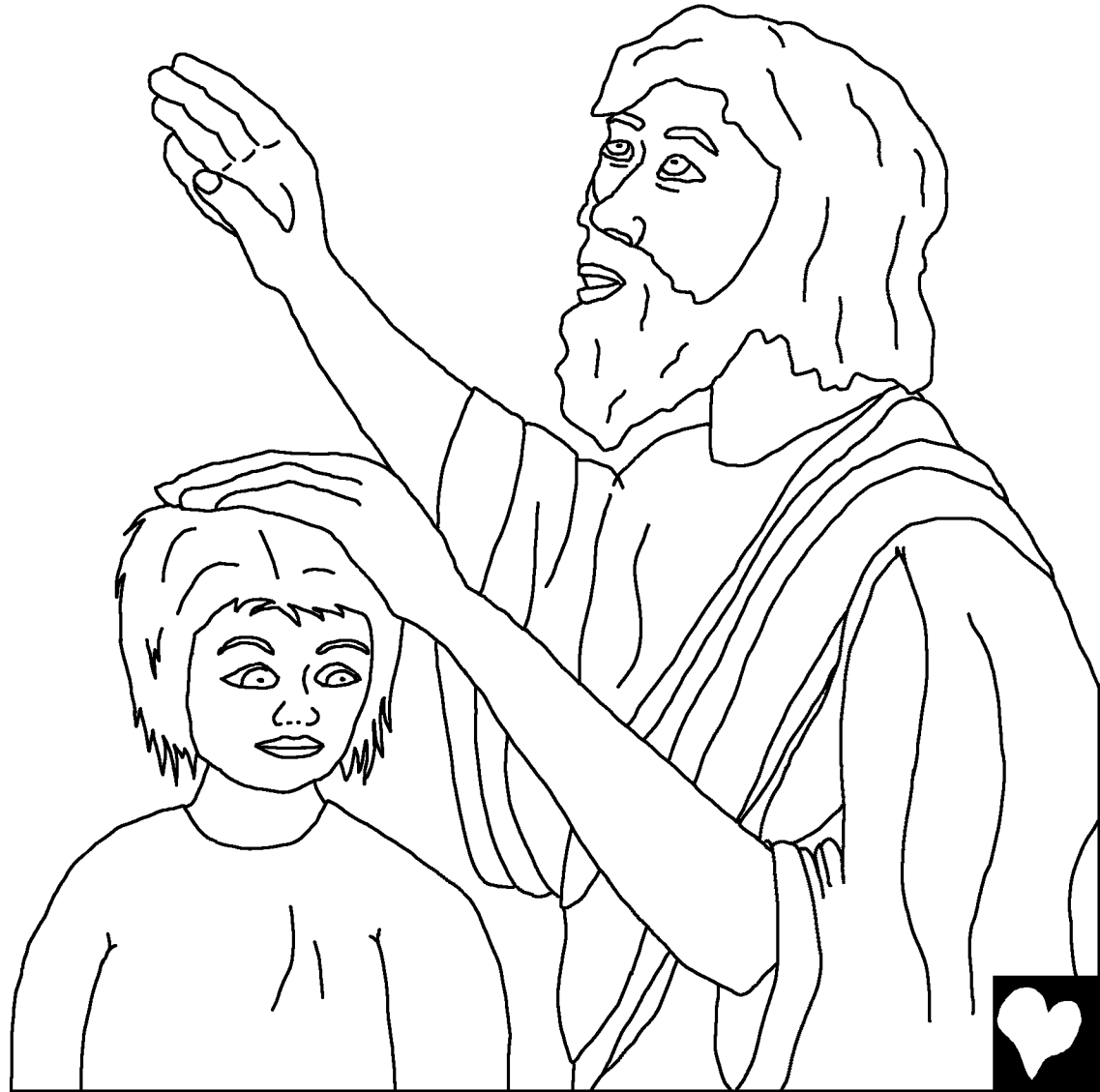
“사람들로 앉게 하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충 세
어도 오천명 정도 되는 남자들이 제자리에 앉았어요. 여자와 아
이들을 제외하고도 오천명이라니!!



예수님은 빵과 생선을 그 소년으로부터
받으셨어요. 이 소년은 예수님을
과연 신뢰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점심을 왜 주님이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내가 이 점심을 드리면 나는
굶어야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는
점심을 주님께
드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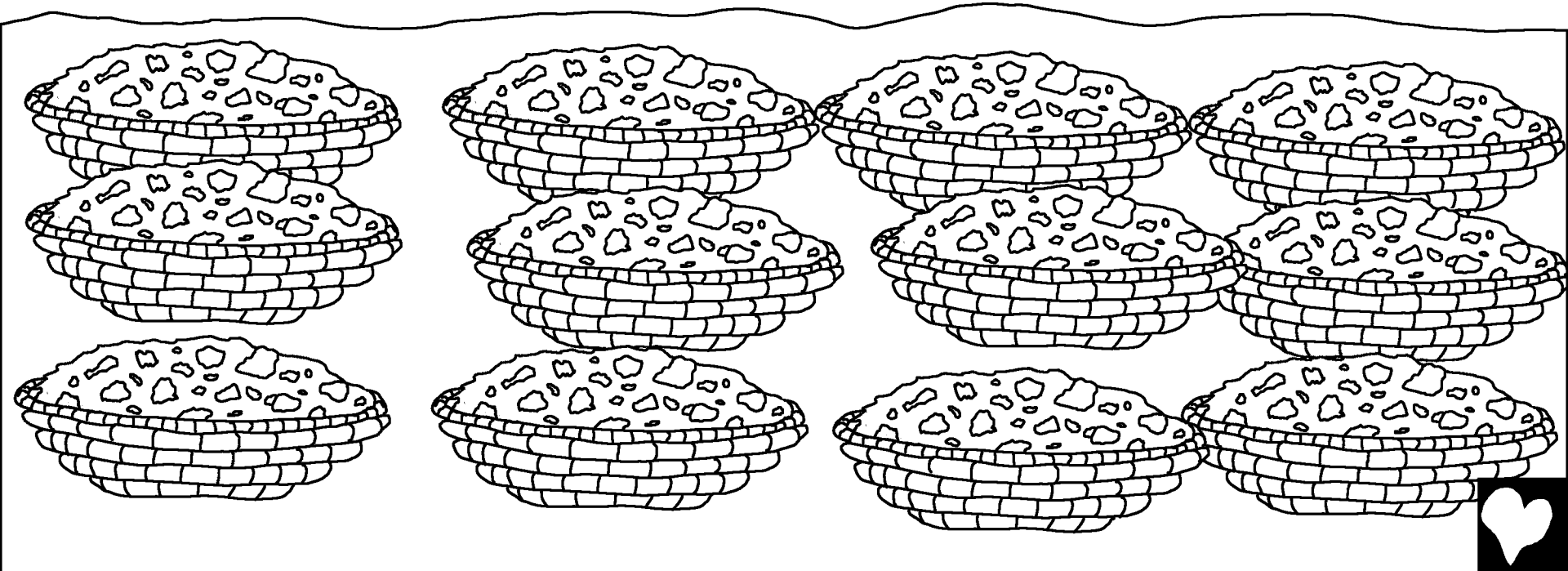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지요.
겨우 빵 다섯 조각과 생선
두마리뿐인데? 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음식을 축복하시기를
간구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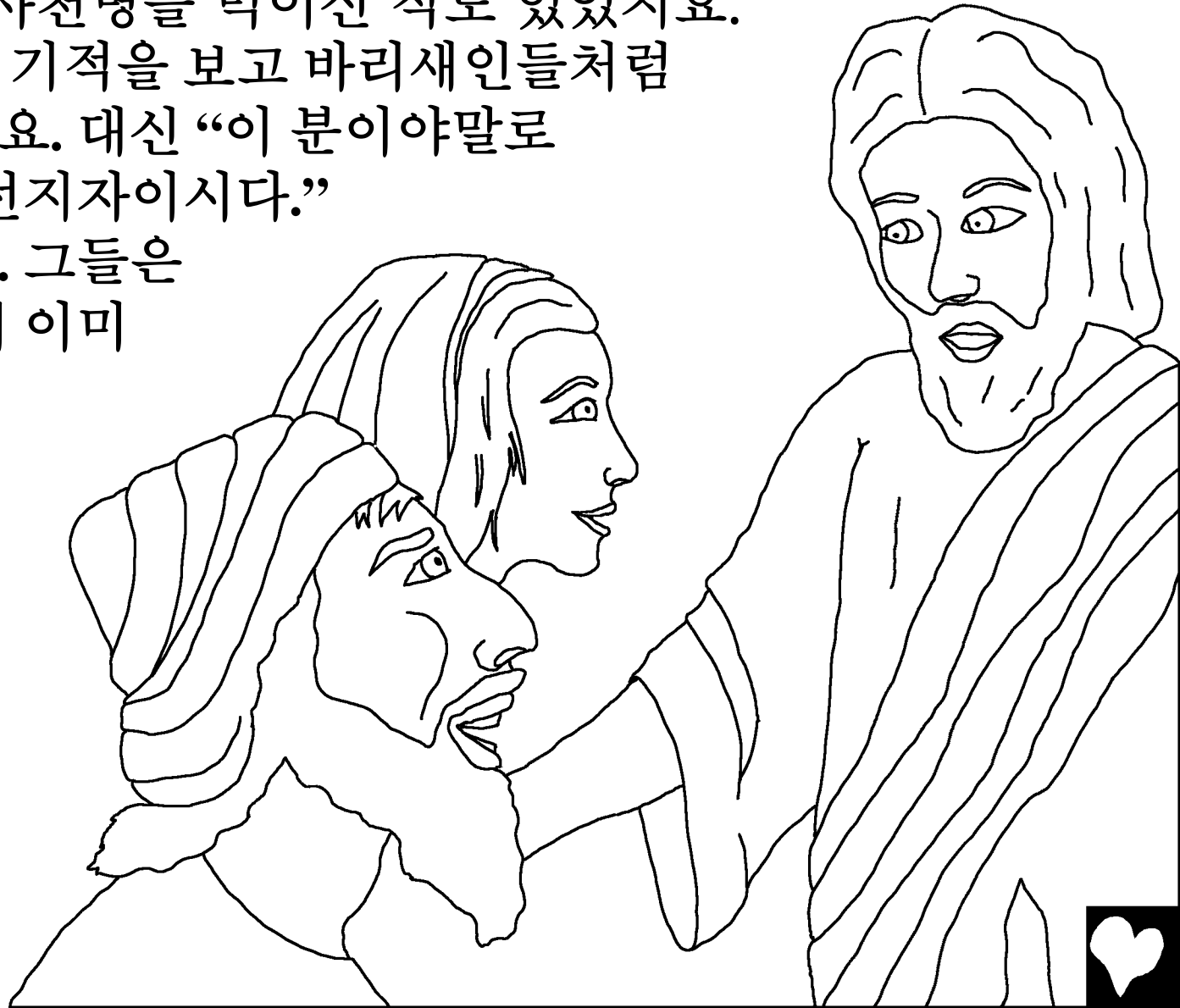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빵과 생선을 나눠서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이 제자들은 큰 무리 모두에게 차례 차례 계속 나누어 주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이 기적을 보게 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실컷 배부르게 먹고도 빵과 생선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음식들을 모아서 버리지 말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모으자 열 두 바구니에 가득찼어요.



예수님은 이 날, 한 소년의 점심을 가지고 오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어떤 때는 겨우 일곱 개의 빵과 생선 몇 마리로 사천명을 먹이신 적도 있었지요.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고 바리새인들처럼 분내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신 참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구세주이심을 알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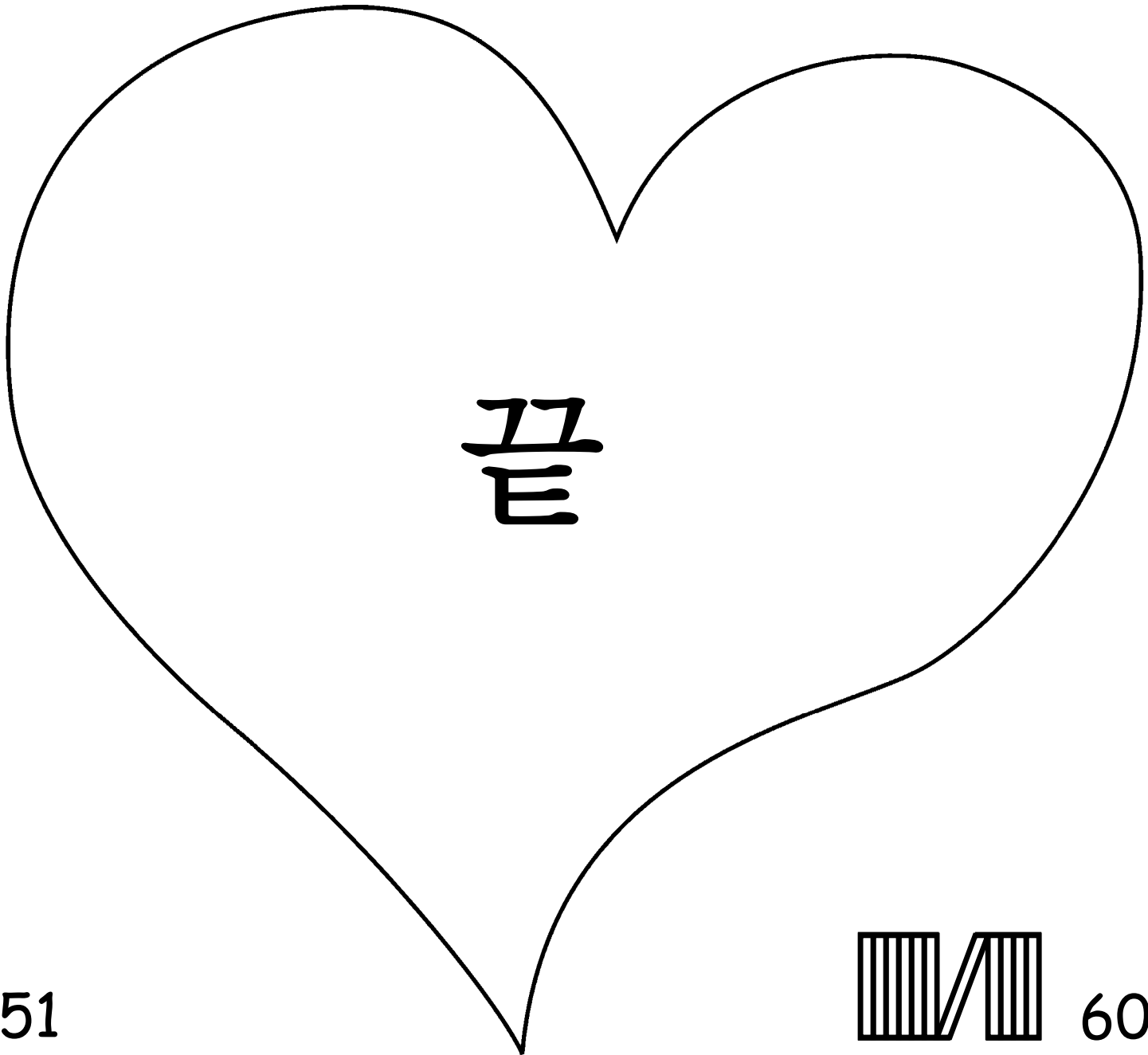
오천명을 먹이신 예수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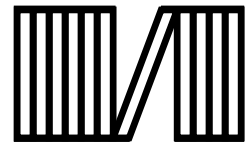
요한복음 6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51



60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